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1월 19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 임동해 ☎440-2931 • 담당자 고경옥 ☎440-2931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요! 나, 너, 우리돌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공식 출범

- 통합돌봄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민 참여로 다함께 돌봄 실현 기대 -
- 돌봄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 인적·물적 자원 발굴·연계 -
- 박 시장, 시민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속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할 것 -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이 공식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19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인북드림 시민축제’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던 곳(주택, 그룹 홈)에서 돌봄서비스(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지원단 50명과 유튜브,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Zoom으로 4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유해숙 사회서비스 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발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대표 선서 및 점등식 ▲ ‘22년 시민지원단 활동계획 및 확대 방향 등 안내로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시민지원단은 현재까지 157명이 신청 했 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돌봄 사각지대 발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제공자 모집·양성을 통한 돌봄 저변 확대, 기타 돌봄 관련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을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했다며, 오늘 출범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 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시민 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숙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고 덧붙였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